

2024년
VOL.2

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부혁신



최초

최고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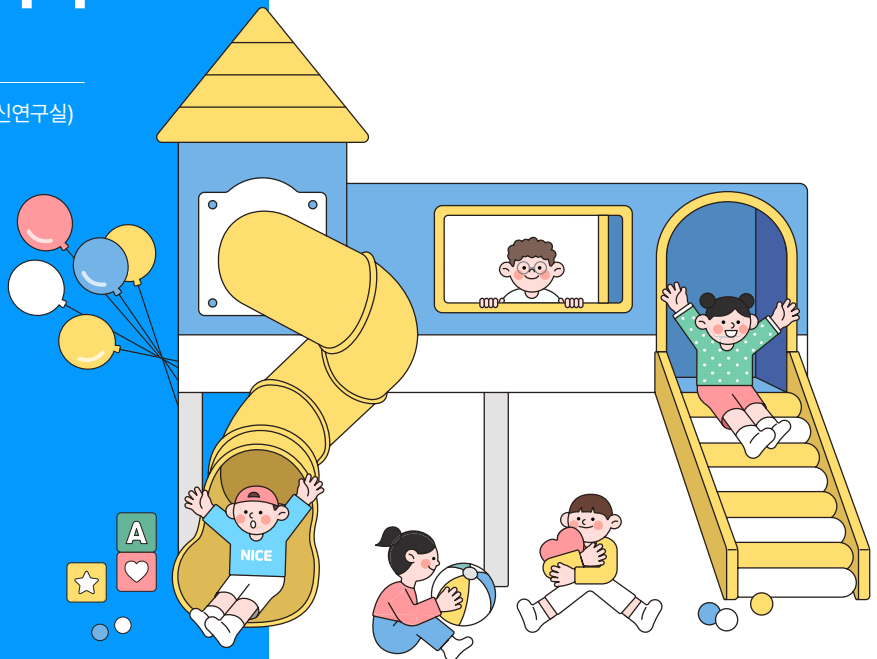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놀이터

경기 시흥

숨쉬는 놀이터



정은경 선임행정원(행정혁신연구실)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혁신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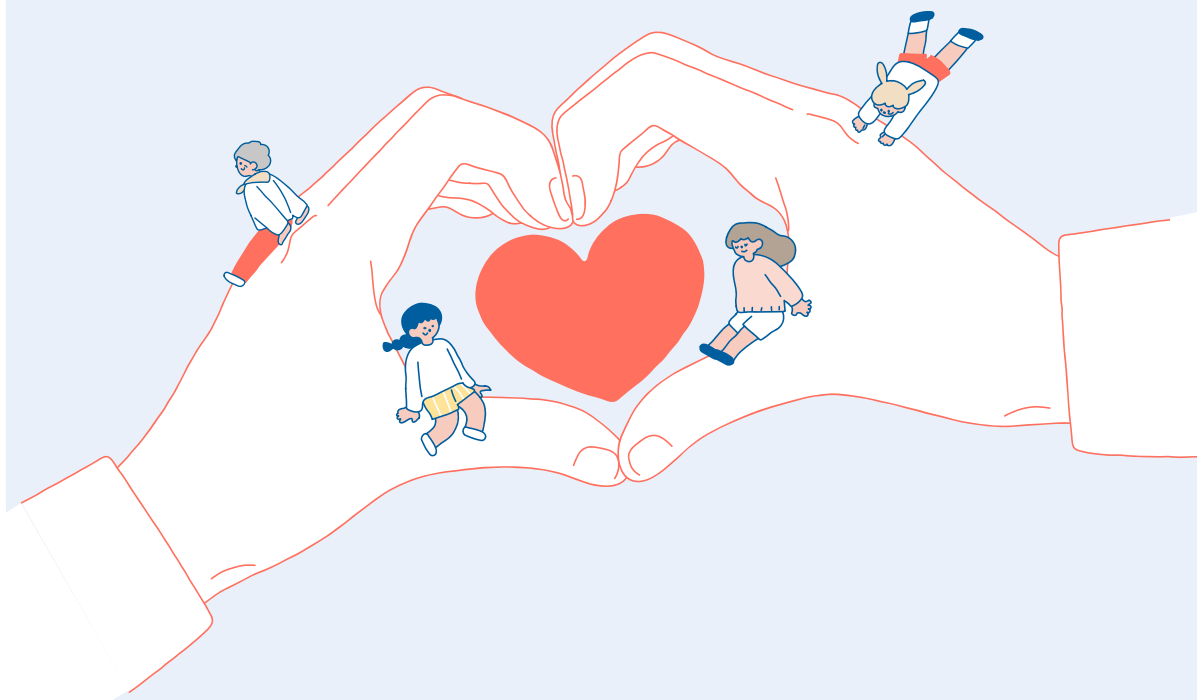
2024 정부혁신 **국내최고** 사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놀이터

경기 시흥 **숨쉬는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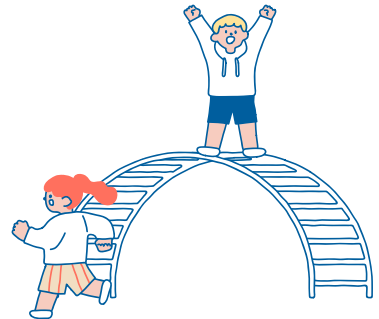
정은경 선임행정원(행정혁신연구실)



시흥시 '숨쉬는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예전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임과 동시에,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우러져 자기 세대의 놀이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노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다.

아무런 약속 없이도 방과 후 저녁에 나가면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 수 있던 놀이터. 맑은 날에는 정글짐을 오르내리고, 비오는 날에는 젖은 흙으로 모래성을 쌓던 우리 어른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듯한 그 풍경과 아련한 추억은 미세먼지와 코로나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찾아보기 쉽지 않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 세대의 놀이터에 대한 멀어지는 기억. 그러나 시흥시의 플레이스타트 사업으로 인해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숨 쉬게’ 되었다. 시흥시 ‘숨쉬는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예전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임과 동시에,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우러져 자기 세대의 놀이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노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다. 시흥시의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인권조약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협약 가입국은 협약 내용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로부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담겨있는 이 협약의 제31조는 아동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였다. 정부도 아동의 놀이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출처: 국제아동인권센터(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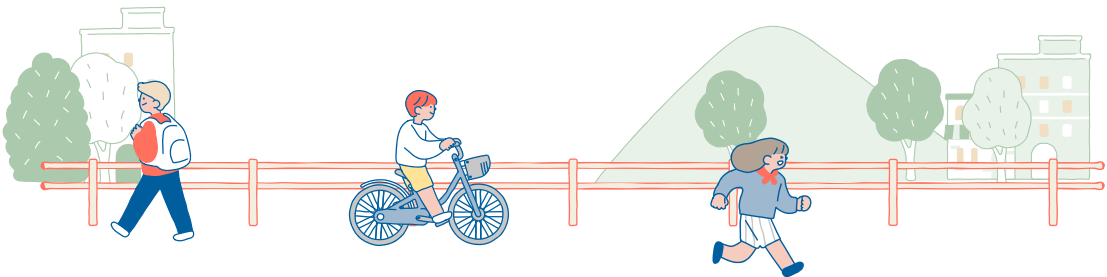
하지만 아이들은 놀 권리를 실제로 보장받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9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42.9%) 실제로는 같이 놀지 못하고 있으며(18.6%), 그 차이는 2018년 조사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또래들과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아동의 방과 후 실제 활동과 희망활동 응답률(9~17세) !

(단위 : %)

구분		2018년			2023년		
		실제	희망	차이	실제	희망	차이
집에서 쉬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39.1	40.5	△1.4	44.5	44.9	△0.4
	TV 시청	23.0	27.4	△4.4	12.2	13.7	△1.5
	컴퓨터 게임하기	17.0	22.9	△5.9	12.8	22.7	△9.9
집에서 숙제하기		31.2	20.1	11.1	35.2	18.4	16.8
친구들과 놀기(놀이터, PC방 등)		13.8	32.7	△18.9	18.6	42.9	△24.3
방과 후 자율학습 또는 학교 참여		13.1	11.6	1.5	9.5	6.7	2.8
학원이나 과외		57.6	29.7	27.9	54.0	25.2	28.8
방과후 돌봄기관, 청소년시설		1.6	2.5	△0.9	3.8	2.2	1.6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2.6	11.5	△8.9	7.5	19.7	△12.2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 6. 7.)



1 보건소에서 놀이터를 운영한다?



숨쉬는놀이터는 공공 놀이터 중 유일하게 ‘보건소’가 운영하는 놀이터이다. 시흥시보건소를 주무기관으로 시흥시에 서 기획부터 설치 및 운영까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놀이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흥 시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보건 소는 보건·의료 분야와 같은 기존 보건소의 사업이 아닌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체험적인 활동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사 업 발굴의 필요성을 느꼈고, 모든 연령층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면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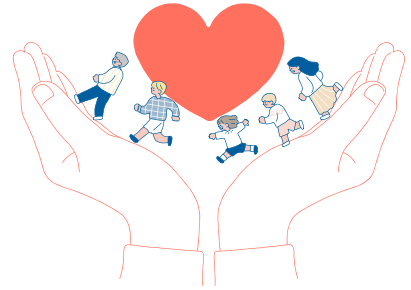
이에 어린 시절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양한 놀이를 하며 뛰놀던 건강한 골목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무 원을 대상으로 “놀이의 힘, 골목의 풍경을 바꾸다”를 주제로 놀이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모여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후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의 놀 권리를 담은 「시흥시 놀이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 단위의 공공 놀이문화사업 ‘플레이스타트 시흥’을 본 격적으로 추진했다. 숨쉬는놀이터는 미세먼지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가정형편 등 사회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이자,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의 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하 는 놀이지원센터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¹⁾. 2018년 1호 숨쉬는놀이터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3호의 숨쉬는놀이터 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Ⅰ 시흥시 숨쉬는놀이터 현황 Ⅰ

구분	면적	개장시기	주요 시설
1호 숨쉬는놀이터 (북부권)	309㎡ (94평)	2018년 10월	한옥형 조합 놀이터, 모래놀이터, 슬라이드, 놀이지원센터 등
2호 숨쉬는놀이터 (남부권)	320㎡ (97평)	2019년 11월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 놀이공간, 나무언덕놀이터, 빛놀이터, 소리놀이터, 플레이스타트 사랑방 등
3호 숨쉬는놀이터 (중부권)	971.65㎡ (294평)	2020년 12월	스페이스 넷트, 암벽오름대, 빅트리 놀이터 VR 체험공간, 에어바운스 놀이공간 등

1)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s://www.siheung.go.kr/portal/contents.do?mId=0303150000> (검색일: 2024. 8. 8.)

② 놀아주지 마세요. 같이 놀아요!



“키즈카페와 다른 점이 뭔가요?” 실내 놀이터인 숨쉬는놀이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최근 일부 식당, 카페 등에서 시작된 ‘노키즈존’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경관을 해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는 추세이고, 아파트 입주주민만의 사유 재산이며 치안에 좋지 않다며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외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터 82,640개소 중 53%에 달하는 44,027개가 주택단지 안에 있다. 해당 주택단지에 살지 않는 아이들은 마음껏 들어가서 놀기 어렵다. 키즈카페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이가 놀고 싶을 때마다 찾기 어렵다. 놀 권리는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숨쉬는놀이터가 키즈카페와 다른 점은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놀이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키즈카페와 다른 점이다. 아이들에게 돈을 내지 않아도 환영받을 수 있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숨쉬는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 위해 마음껏 드나든다. 약속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곳에 친구들이 이미 모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숨쉬는놀이터에 방문하는 아이들은 키즈카페가 아니라 친척 집에 놀러 온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무료로 운영되는지라 시설이나 놀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법 하지만, 한 번이라도 숨쉬는놀이터를 방문해 본 부모들은 곧 이와 같은 걱정을 잊는다. 대형 정글짐과 미끄럼틀, 각종 VR 게임기, 마음껏 만들고 부술 수 있는 메이커 놀이터, 카드와 보드게임 등 놀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볼 시간조차 없이 친구들과의 놀이에 빠져든다.



3호 숨쉬는놀이터 스페이스 넷



3호 숨쉬는놀이터 VR 체험



메이커 놀이터



놀이카드 등 자체 제작 놀이교재

무엇보다 숨쉬는놀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색은 함께 온 보호자도 아이와 함께 놀아야 한다는 점이다. 숨쉬는놀이터에는 아이와 함께 온 보호자들이 따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 아이와 함께 온 보호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놀이에 참여해야 한다. 숨쉬는놀이터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아니다.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놀이교육’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아빠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교육도 있다. 놀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놀이터 뿐 아니라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이들과 잘 노는 것이다. 그래서 숨쉬는놀이터의 남자 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용 남성 소변기 대신 가정용 변기가 있다. 일반적인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외부 시설이 아닌 마치 집에서 노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전통놀이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어릴 때 즐겨하던 놀이를 카드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함께 노는 것이다. 또 숨쉬는놀이터에는 고용노동부 신중년·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26명의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함께 놀 수 있는 할머니 놀이 친구가 생긴 셈이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놀이활동을 하는 모습



3 엄마가 만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제가 직접 만든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상상만 하던 천국을 실제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놀이터야’라고 말하면서 자긍심도 생겼어요.”

- 박초롱 플레이스타터



숨쉬는놀이터는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놀이터이기에 더 특별하다. 시흥시는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인 ‘플레이스타터’를 운영하고 있다. 플레이스타터는 놀이를 가르치거나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위적인 공간이나 전문가의 기획 없이 시민들이 직접 놀이터를 만들어 함께 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플레이스타터는 시흥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규 양성교육인 기본과정과 역량 강화 교육인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플레이스타터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8기 플레이스타터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312명이 수료했다. 플레이스타터는 활동에 대한 보수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플레이스타터는 정례회의와 워크숍 등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시민들이 모여 직접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놀이터 운영자가 함께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타터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일이 있다는 성취감을 주며, 나와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다. 공무원들

생애주기별 건강한 놀이문화
플레이스타터 양성교육
2024 시민 놀이활동가 양성 기본과정 8기 모집 안내

대상
시흥시 놀이문화의 향유, 확산에 관심 있는 성인 및 학원도입생 직원활동가 50명(선착순 모집)

교육기간
- 2024. 3. 8. (금) ~ 3. 30. (토), 10:00~13:00
- 3. 30. (토), 13:00~17:00
- 주 3회(총 6회) 진행

장소
ABC 행복학습지원 거점관 다목적실

신청방법
구분 신청서 작성(신청서 내 Q&A도 소문)

교육내용

회차	일자	주제	주요 내용	인원
1강	3. 8. (금)	개강	플레이스타터와 시흥 소개 놀이의 문화와 나의 Happy Play (시흥시 놀이문화원)	모집
2강	3. 15. (토)	기본 시작 발표	(자유활동가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토론 플레이스타터와 시흥/세계 발표	모집
3강	3. 22. (토)	놀이 실재 (1)	플레이스타터 놀이실재와 놀이실재로 놀기	플레이스타터
4강	3. 29. (토)	주요지	건강한 놀이문화 기획·발표 및 수료식	모집
5강	3. 30. (토)	놀이 실재 (2)	<토.토.토> 합동놀이와 평가	플레이스타터

플레이스타터 양성교육 모집 포스터



플레이스타터 기획 회의 모습



아빠 플레이스타터 활동 모습

역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플레이스타터의 모습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놀이를 매개로 공공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와 함께 노는 동네 이웃이지 선생님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놀이의 최고 전문가이자 선생님은 어린 이들입니다.” - 골목골목 팝업놀이터 안내서 중

‘골목골목 팝업놀이터’는 놀이가 필요한 골목에 직접 찾아가는 원데이 놀이터로 시흥 시민들과 플레이스타터가 함께 만든 숨쉬는놀이터의 대표적인 놀이 활동이다. 동네 어른들이 공유공간을 정하여 시흥시보건소에 신청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획하여 팝업놀이터를 개최한다. 공원, 도서관 앞마당, 농구장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아이들 누구나 마음껏 합류하여 놀 수 있다. 매번 다양한 주제와 테마를 제공하며, 각종 놀이도구를 담은 놀이상자도 제공한다. 팝업놀이터에 참여하는 어른들의 역할은 간단하다. ‘놀이터 지킴이’로서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주도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함께 놀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는 ‘폐현수막으로 해먹 만들기 놀이터’와 ‘현옷으로 낙하산 만들기 놀이터’를 진행했으며, 아이들은 분해하고 부수는 행동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된 버려지는 장난감을 아이들이 직접 분해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폐장난감 분해 놀이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황토에 자유롭게 물을 부어 노는 ‘흙 팝업놀이터’, ‘물총놀이’, ‘전통놀이 팝업놀이터’ 등 특색있는 팝업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총 119회 운영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팝업놀이터는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왁자지껄 골목길 풍경이 되살아난 것 같은 추억을 되살려 준다.

골목골목 팝업놀이 참여 후기

“할머니는 하루종일 손주가 유튜브만 보고 밤늦게까지 안 자서 걱정이라고 하시고, 할아버님은 놀아줄 방법을 몰라서 매번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주느라 허리가 휘청거린다고 하셨는데, 골목골목 팝업놀이터에 다녀 온 이후 연날리기 하나로 동네 맥가이버에 슈퍼 영웅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 놀이터 지킴이 김연정



흙놀이 팝업놀이터



탄소중립 그린 팝업놀이터



폐현수막 놀이 팝업놀이터



팝업놀이터를 기획한 플레이스타터 모습



4 어른들도 놀 권리가 있습니다!



숨쉬는놀이터가 특별한 이유는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숨쉬는놀이터에서는 아이 뿐 아니라 각박한 사회에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른들도 마음껏 놀며 숨 쉴 수 있다. 숨쉬는놀이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별 놀이문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시흥시의 '건강도시' 사업의 주요 보 건정책인 '생애주기'가 스며들어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놀 이거리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인식에서 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다. 영아,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놀이교육과 놀이 활동이 운영 중이다.

영유아 놀이활동인 '애착과 놀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교육으로 놀이를 통해 부모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늬내건강학교'와 '나리꽃방'은 코로나19가 유행일 때 집안 에 고립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놀이활동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르신이 스스로 즐거운 노년을 만들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일 하나씩 미션을 게임과 같이 제안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에 일정 등록하고 알람 설정하기",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해보기",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술마시고 담배피 우는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아까워서 바꾸지 못한 오래된 물건 하나 바꿔보기", "스카프로 눈과 손 운동하기" 등 그 내용도 재미있다. 이는 플레이스타터들이 함께 구상했는데, '내가 나중에 노년을 보낼 때 이렇게 친구들과 놀면 좋겠다' 하는 고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어르신 놀이활동 안내서
「나리꽃방」



영유아 놀이활동 안내서
「애착과 놀이」

어르신 놀이학교 늬내건강학교 참여 후기

“북한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운동도 하고 친구님들하고 놀이 도 할 수 있으니 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르쳐 주신 신체활동을 하면서 정신도 맑 아지고 오십견도 좋아졌어요.” - 김춘화 어르신

“오늘은 무슨 미션이 주어질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곤 했어요. 텃밭도 가꾸 고, 시 낭송하고 요즘은 천자문 공부에 푹 빠져 사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 황 정숙 어르신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언니들에게 음식 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한 달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기도 하고 언니들 이야기기도 듣고,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고마웠어요.” - 김윤자 어르신



어르신 놀이학교 「늬내건강학교」 활동 모습

✓ 놀이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숨쉬는놀이터



숨쉬는놀이터가 정부혁신 최고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놀이터 전문가들은 놀이터를 평가할 때 단순히 시설 수 보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즐겁게 노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런 점에서 숨쉬는놀이터는 전 세계 어느 놀이문화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놀이터라고 평가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놀이 프로그램과 교재를 상업적인 의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등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숨쉬는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흥시의 놀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한 시흥 시민들의 열정에 있다. 아이들이 땀 흘리며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부딪힘을 느낀다는 숨쉬는놀이터 관계자들은 말그대로 놀이에 진심이다. 현재도 꾸준히 놀이 관련한 각종 포럼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접 발로 뛰며 놀이터 전문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며 협업했다. 독일의 세계적인 놀이터 전문가 권터 벨치히에게 숨쉬는놀이터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꾸준히 교류했고, 권터 벨치히의 디자인을 토대로 1호 숨쉬는놀이터의 한옥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숨쉬는놀이터 총괄 기획에 참여한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는 놀이터 디자인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놀이문화 교육에도 꾸준히 강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토록 관계자들이 숨쉬는놀이터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강한 의지로 이끌었던 시흥시 보건소장을 비롯해, 놀이와 놀이터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며 아낌없이 지원한 시흥시장과 시흥시의회를 비롯한 시흥시의 리더십에 있다.

한편 숨쉬는놀이터의 최대 고민은 인력 문제이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짧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떠나야하기 때문에 오래 함께하기가 어렵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뿐더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할 교육들이 많은데, 교육만 하다가 한 해가 다 가는 기분이라고 한다. 놀이터에 정규직으로 오래 함께 일하며 놀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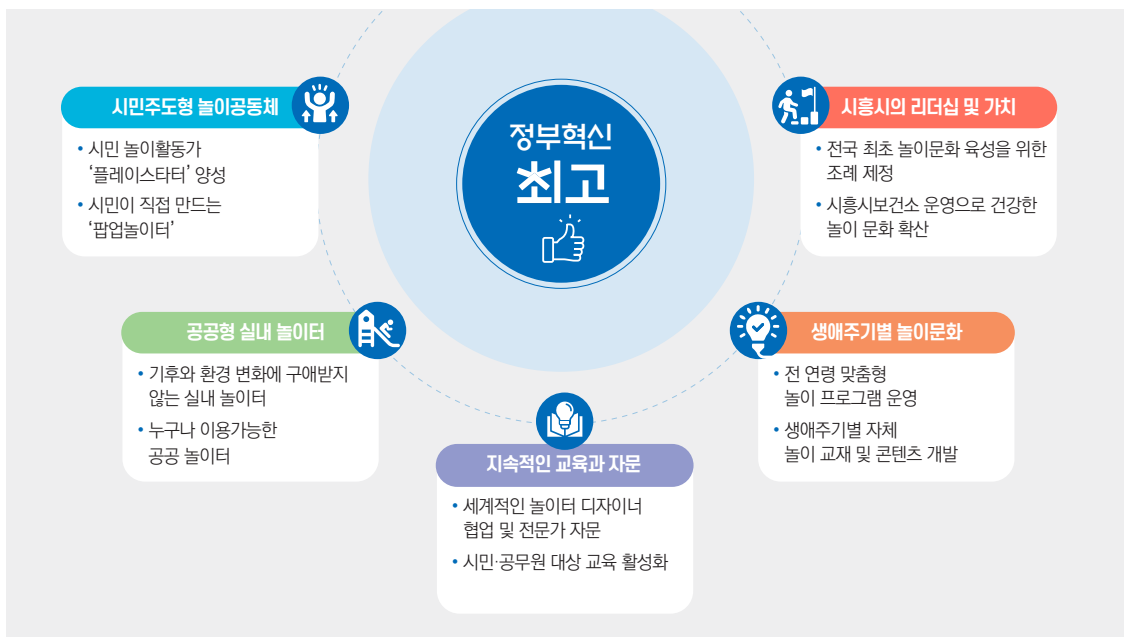
무엇보다 숨쉬는놀이터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놀이터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한다. 국내 최고 사례로 선정된 이후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러 방문했지만 대부분 예산과 비용, 시공

업체 위주의 질문만 하는 것이 내심 아쉬웠다고 한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체 개발한 교재와 놀이콘텐츠를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개선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외국어 놀이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외국어로 번역된 놀이교재와 놀이카드 등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놀이전문가인 최재훈 시흥시 놀이문화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놀이는 공공재입니다.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놀이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놀이지원센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2027년 4호 숨쉬는놀이터 개장을 목표로 기획 중에 있다. 담당자들은 오늘도 전국의 놀이터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놀이에 대해 공부 중이다. 시흥시가 숨쉬는놀이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과 다양한 놀이를 고안한 참신한 아이디어 덕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진심’과 놀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진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숨쉬는놀이터가 그린 놀이문화가 시흥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시흥시 숨쉬는놀이터의 혁신 요인 !



도움을 주신 분들

오명화 주무관(시흥시보건소), 이나현 주무관(시흥시보건소), 최재훈 부위원장(시흥시 놀이문화운영위원회), 김미애 운영자(숨쉬는놀이터 3호), 박초롱 플레이스타터, 배송수 회장(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 본 KIPA 정부혁신 최초·최고 브리프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행정연구원 | 만든 사람들 김정해, 조세현, 김도균, 정은경

통권 제2호 | 발행일 2024년 8월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 | 전화 02-2007-0656

홈페이지 www.kipa.re.kr | 디자인·편집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한국행정연구원